

SAMC | LAW REVISION**1. 폐(廢)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최근 불법 폐기물(쓰레기)을 폐(廢)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컨테이너에 적입된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제3915호), 생활폐기물(제3825호)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추가하고, 잠정가격 확정 신고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월 4일 입안예고했다

[Read More](#)**2. 북부산세관, '용당세관'으로 명칭 변경 예정**

북부산세관의 명칭이 현 세관 소재지에 부합하도록 다시 용당세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창원세관 관할구역에서 마산항 부두를 제외하고, 인천공항공국제우편세관 관할구역에는 인천해상교환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민원인의 혼선 방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북부산세관의 명칭을 용당세관으로 다시 변경할 예정이다.

[Read More](#)**3. 11/1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니코틴 함량 필수기재**

11월 1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니코틴 함량과 천연·합성 여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11월 18일부터는 해외 직구 및 특송화물·우편물로 반입되는 니코틴 용액의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한다. 관세청은 10월 23일 정부 합동대표단이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민들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투쟁을 선언했다.

[Read More](#)

2. D램 수출물가 '반토막'...10월 수출입물가 두달째 동반 하락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던 반도체의 수출물가가 다시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체 수출물가를 끌어내렸다. D램의 수출물가는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약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율 효과'가 사라진 데다,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지속한 것도 수출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수입물가도 석탄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두 달 연속 내렸다. 수출물가지수는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7.3% 떨어져 5개월 연속 내리막을 나타냈다.

[Read More](#)

3.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무산 땐 대규모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 대규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또다시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동안 그가 여러 차례 밝혔던 것과 동일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지만, 최근 '관세 철폐' 합의 여부를 둘러싼 미중 정부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WSJ는 "미국과 중국이 '제한적 무역협상' 타결에 이르는 데 관세가 주요 걸림돌로 부상"을 전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아·태 지역 메가 FTA 'RCEP 타결'

RCEP 협정 타결이 선언돼 우리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4일 ASEAN과 韓·中·日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 투자, 통관, 지식재산권 등 20개 챕터가 담긴 협정문에 합의 했으며, 내년에 최종 서명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ad More](#)

2. 英·EU, 최대 '내년 1월 31일'로 브렉시트 연기 합의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내년 1월 31일로 미뤄졌다. 탈퇴 시점 연기만 벌써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한·영 FTA 발효도 최대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영국과 수출입하는 우리 기업은 기존처럼 한·EU FTA를 적용하면 된다. 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EU는 10월 28일 회원국 대사들을 브뤼셀에 소집해 브렉시트 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정부는 노딜 방지법(Benn Act) 강제 조항에 따라 EU에 탈퇴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Read More](#)

3.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 개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 번호가 부여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관세청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

식약처에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식품등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다른 업체를 비방하는 표시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로 규정 하여 10월 28일 부터 시행 되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거나,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표시, 광고등에 대해서는 21년 3월 14일까지 유예기한을 두었다.

[Read More](#)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어린이가 섭취하는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정된 원료 중 기준규격을 추가 등재되는 기간에 대한 연장요구를 반영하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시, 규격이 중복된 경우에는 배합비를 고려하여 규격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ad More](#)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 기능정보표시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한, 기타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예고 하였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